

[바둑]

아마 바둑도 한국이 최강

한국 아마 바둑이 제1회 CMC배 아시아아마바둑 10강전을 휩쓸었다. 세계 최정상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프로기사들에 이어 아마 바둑도 최강의 실력을 과시한 것이다.

바둑이 2010년 광주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바둑의 스포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한국 아마 선수들의 국제 무대 선전이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기원은 4일 "지난달 막을 내린 이 대회에서 한국의 김남훈, 송홍석, 강창배 아마 7단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남훈은 지난달 2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8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4, 5라운드에서 동료선수인 송홍석, 강창배를 차례로 물리치고 5전 전승으로 단독선수로

나서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이어 29일 벌어진 6, 7, 8라운드에서 전승을 거두 승리를 확정지었다.

김남훈은 지난 5월 전주에서 벌어진 제2회 전북은행장배 아시아 아마바둑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했다. 이번 CMC배에서도 우승하며 명실상부한 아마 바둑 '아시아의 제왕' 된 것이다.

시상식에서 김남훈은 "1회 대회에서 우승해 무엇보다도 기쁘다"면서 "대만기원 연구생들 실력이 한국기원 연구생 못지 않았는데, 한국도 지속적으로 아마 대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훈에게 패한 송홍석이 최종 7승1패로 2위, 김남훈-송홍석에게 진 강창배가 6승2패로 3위에 올랐다.

주최국인 대만은 라이위칭 아마 7단이 5승3패로 4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번 대회 최고령자인 일본의 히라타 히로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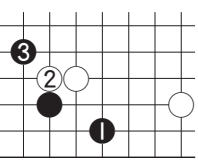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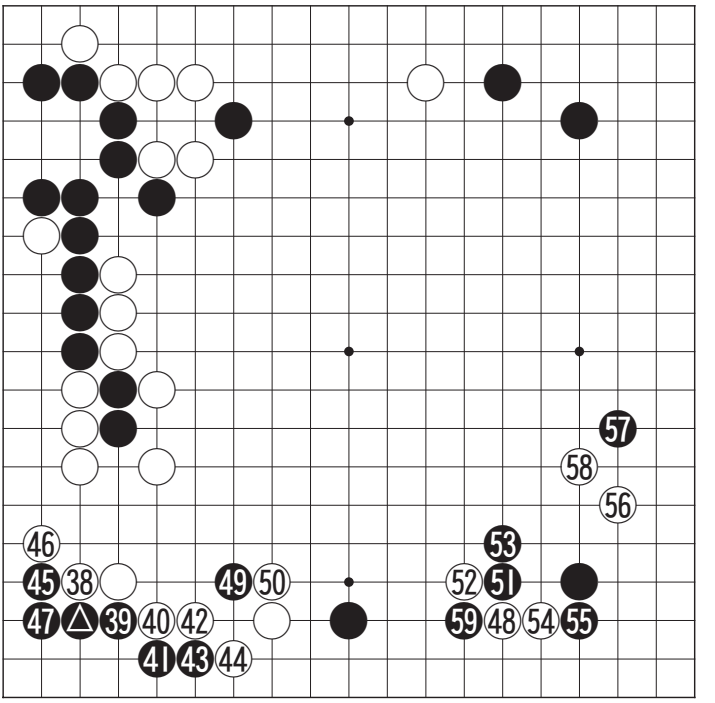
‘제1회 CMC배 아시아아마바둑 10강전’ 김남훈, 송홍석, 강창배 1, 2, 3위 휩쓸어 주최국 대만팀 라이위칭 7단은 4위 그쳐

(82) 아마 8단은 5승3패로 6위를 기록했다. 최연소 선수인 만의 양보웨이(10) 아마 5단은 4승3패로 18위에 올랐다.

김남훈, 송홍석, 강창배는 상패와 함께 각각 우승 상금 5천달러, 준우승 상금 3천달러, 3위 1천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랭킹 10위까지 각각 3위 1천달러, 4위~7위 500달러, 8위~10위 100달러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 모든 대국은 각자 제한 시간 30분에 30초 초읽기 3회로 진행됐다.

한국기원 오규철 프로 9단은 "학교 스포츠가 감해져 성인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듯, 아마는 프로 바둑의 뒷줄 역할을 한다"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아마 바둑대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아마 대회에도 바둑팬들의 성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교육지책의 불어 날기 3회전 2국 3보 (38~59) 白 허우석 5단 黑 이한재 5단 (북구형) (조선대)



〈참고도〉

흑 ▲ 을 직접 움직이는 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49로 들여다 봤는데 이것도 50으로 반발당하여 약속이 되고 있다. 흑 51로 붙여 넣는 것은 교육지책이었으나 이 장면에서는 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이때 백은 '가'로 계속 밀어서 왼쪽에 큰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쉽게 살려주고 말았으나 38로 '참고도'의 백 1로 강력하게 공격했다면 이곳이 승부처가 될 뻔 했다. 흑 2에는 3으로 두어 흑이 위험하다. 허우석 5단의 구상은 백 4를 차지하여 흥분하다는 계산이며 이 정도로도 흑이 곤란한 것은 사실이다. 이한재 5단은 좋은 수가 안보이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흑 한점

이세돌 9개월 연속 랭킹 1위

박정상 9위~6위로 상승

이세돌 9단이 무려 9개월 동안 랭킹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이세돌은 지난달 6승2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15.055점을 획득해 9개월 연속(2007년 11월~2008년 6월) 1위를 차지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5월 랭킹과 순위 변동이 없는 가운데 10승1패를 거둔 박정상 9단이 9위에서 6위로 세 계단 뛰어올랐다. 강동윤 7단도 7위를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50위권 안에서는 8연승을 거둔 이현호 초단이 36위에 오르며 50위권 진입에 처음 성공했다. 5승1패를 거둔 한종진 7단이 6월보다 무려 15계단 상승하며 47위에 올랐다.

반면 여자 기사들의 부진은 계속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조반 차민수 4단의 5연승에 맞서 여류팀 이민진 5단의 4연승, 이후 시니어팀 김중수 6단의 4연승을 거두는 등 흥미진진한 연승행진으로 많



광주시바둑협회(회장 고경주)는 지난달 29일 염주체육관에서 제2회 광주시바둑협회 회장배 바둑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마최강부, 일반부, 초등최강부, 여성부 등 12개 부문에서 500여명의 아마 선수들이 자유를 거렸다. 우승자는 아마최강부 심재욱, 여성부 김영자, 중고남학생부 권재구, 초등최강부 강민우 등이다. 심재욱, 김영자씨 등은 전국제전 광주 대표로도 선발됐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명품 바둑시장’ 열린다

바둑인 애장품 기증받아 내달 20일 경매 행사

유명 프로기사들의 흔이 담긴 명품 바둑 용품을 전문적으로 살 수 있는 경매장이 생겼다.

한국기원과 부동산경매회사인 지지옥션은 프로기사들이 소장하고 있는 애장품, 바둑용품, 서화작품 등을 기증받아 일반인들에게 경매하기로 했다. 지지옥션은 지지옥션배 여류대 시니어연승대항전을 개최하고 있다. 경매일은 오는 8월 20일, 장소는 서울 한국기원이며 8월 12일까지 경매 참여자를 접수받는다. 또 같은 기간 현장경매와 동시에 온라인(www.ggi.co.kr)을 통해서도 볼

한 프로기사들의 사인이 담긴 바둑판이 매물로 나오고, 수익금 전액은 바둑 꿈나무 육성을 위해 어린이가전시설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조반 차민수 4단의 5연승에 맞서 여류팀 이민진 5단의 4연승, 이후 시니어팀 김중수 6단의 4연승을 거두는 등 흥미진진한 연승행진으로 많

한국기원은 지난해에도 제1기 지지옥션배 여류대 시니어대항전 창설기념으로 본선대국에 쓰인 모든 바둑판에 대국자의 사인을 받아 경매를 했었다.문의 02-711-9114. /오광복기자 kroh@

국내 프로기사 습 1,200단 돌파

한국기원 소속 231명 합계 2,661단...중은 통계 없어

한국기원에 소속된 프로기사들의 단수의 총합이 1천200단을 돌파했다. 〈표 참고〉 지난달 3일 김주호, 진시영, 김승재 등 3명이 승단하면서 1천199단이 됐고 같은달 27일 벌어진 제4기 원익배 십단전 예선에서 이상훈 6단이 이슬아 초단에게 승리해 7단으로 승단함으로써 딱 1천200단이 됐다. 이로써 고 조남철 9단이 1950년 6월 27일에 한국 프로제도의 시발점이 된 단위결정전을 개최해 프로기사 단위가 결정된 이래 딱 58년째 되는 날에 1천200단을 돌파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의 프로기사는 총 231명이며 이 중 9단이 47명으로 가장 많고 8단이 17명으로 제일 적다. 국내 프로 기사들의 평균 단위는 5.2단. 한편 일본의 프로기사는 일본기

Table with 3 columns: 한국기원 소속, 일본기원 소속, 일본관서 소속. Each column lists ranks (단위) and player counts (기사수).

원은 318명, 관서기원은 120명으로 총 438명이며, 총단위는 일본기원(1천912단)과 관서기원(749단)을 합쳐 2천661단이며 평균단위는 6단이다. 중국은 프로기사수와 단위의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featuring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원지구 건물임대' with details on 1st, 2nd, 3rd, 4th, 5th, and 6th floor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첨단일계공인중개사' offering '급매매' and '첨단중심 상업매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with tables for '아파트/빌라' and '상가건물/모텔'.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회사' with tables for '주택' and '토지/공장'.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with tables for '건물' and '6역시찰권매'.